슬프고 두려운 뜻밖의 삶

(신명기 14:1~29)

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2.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3.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4.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5.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6.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오늘 14장 말씀 중심으로 <슬프고 두려운 뜻밖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슬프고 두려운 뜻밖의 삶'
'뜻밖의'라는 말은 뜻밖의 횡재, 뜻밖의 행운, 뜻밖의 불행(사고), 뜻밖의 만남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뜻밖의 고백을 들었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예기치 않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골프선수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또는 프로들 사이에서 통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는 뜻밖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골프장은 오직 천국에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탁월한 프로골퍼라도 어떤 대회에서든지 뜻밖의 일은 벌어집니다. 뜻밖의 홀인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너무 쉬운 코스에서 뜻밖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트리플 보기를 할 수도 있고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수풀 속에 떨어질 수도 있고 모래구덩이나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다 뜻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인생의 뜻밖의 일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거나 나쁜 방향으로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숨통이 열리기도 하고 숨통이 꽉 막히기도 하는데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횡재, 행운 등 모든 뜻밖의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의외로 숨통이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

겠습니까?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께 이 세상 만물들로 인한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없고 확률이 제로인데, 유일하게 인간 피조물만 제외하고는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뜻밖의 일이 오직 인간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므로 인격성을 부여하셔서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삼라만상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면서 뜻을 품을 수 있다고 해서 내 뜻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격성을 부여하셨지만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뜻을 내세우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멸망이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으신 삶은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는 뜻밖의 삶이 되었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통째로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가 상실이 아니고,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상실이 아니며, 내가 병드는 것이 상실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상실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뜻밖의 일이 아니라면 실패가 아니고 슬퍼하고 안타까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에 성공해도 하나님께 뜻밖의 일이라면 멸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 저주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상실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 뜻밖의 일이라면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기운의 예고편이 우리 삶에 당장 나타나게 될 것인데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싸움 등 어떤 식으로든지 평안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에 죽은 자에 대한 과도한 애도의 표현을 금지하시는데 성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성민(聖民)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선민(選民)이 성민(聖民)이 되어야 하고 '거룩하고 구분된다.'는 뜻인데 무엇에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택하셔서 구분되어야 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육체가 살게 됩니다. 앞에서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육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특별히 고기를 먹을 때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뜻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음으로 육체가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있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은 정함과 부정함의 두 캐릭터로 구분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부정한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적이 없는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두려워할 일이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될 진짜 죽음은, 내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하는 행동들이 부정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인데 본문 3절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행동을 두려워하고 뜻밖의 행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민으로 뜻밖의 행동을 하면 두려워할 일이지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살 때에 가장 두려워해야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강한 두려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면 육체의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뜻밖의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될 진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의 내용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십일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십일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일조는 성소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소득에서 십일조를 바치는 제1 십일조가 있고, 제2 십일조는 십일조를 바치고 남은 9/10 중에서 다시 1/10을 떼어서 성전에 와서 먹는 것인데 이것을 축제의 십일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와서 즐거워하며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 십일조는 제2 십일조 중에서 칠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와 6년째에는 축제의 십일조를 내가 성전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축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에 쓰도록 하셨는데 이 내용이 앞의 내용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행하게 되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뜻밖의 일이 되지 않고, 진짜 슬퍼해야 될 죽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십일조가 뜻하는 바는 내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소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든지 장사를 하든지 벌어들이는 모든 것에서는 무조건 십일조가 떼어집니다. ‘십일조가 떼어진다.’는 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므로 ‘십일조를 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번 돈으로 십일조를 내고, 그 중에서 또 십일조를 떼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하여 택하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고, 그래서 풍족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풍족함의 은혜를 흘려보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 이

야기를 자세하게 해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애도 행위에 있어서(슬픔을 표현할 때) 우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자기 몸에 자해 행위를 합니다. 그러한 아픔과 같이 슬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썹 사이를 미는 것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곤란할 만큼 마음이 슬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깊이 받아들여서 슬퍼하면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바울은 살전4: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선민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됩니다. 히2: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지만 죽음은 본래 무서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워 할 필요가 없는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역사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역사를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죽음이 무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민의 내적인 구조상 죽음은 무서운 일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대체 선민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기에 보편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이고 슬퍼야 하는 죽음이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요? 선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구름 위의 하늘에 계십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이름의 존재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추구하고 그 존재를 가지려면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애인이 보고 싶어서 마음이 계속 미국을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민은 마음이 구름 위의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만족과 기쁨과 평강의 문제가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육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편적인 선택받지 못한 사

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의미는 전부(everything)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획득하는데 육체가 사용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육체는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 뜻의 거점이 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민이 된 뒤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뒤에도 육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육체가 아니라 사명의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사시다가 육체가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있어서 육체의 의미는 사명적 육체였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행복을 위한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만족이나 기쁨이나 평강이나 행복이 없이 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은 풍랑만난 뱃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을 정도였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보내드림으로써 얻어진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십일 동안 머무실 때에 3년 공생애 동안 알게 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모으신 후에 곧바로 이 땅을 떠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육체가 없기 때문에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혼령이 이 세상을 떠돈다고 하는 미신처럼 주님이 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고, 오감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육체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떠나신 이유는 주님의 육체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육체가 있으셨지만 이 육체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하나님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이 좋아서 돈을 버시고, 권력이 좋아서 이 세상을 정복해서 왕이 되셨다면 하나님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히 열망하고 기대해야 될 순간입니다. 내가 돈을 백억을 벌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자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죽는 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고 기대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간 사람들이 군복무 기간 전체에서 최고의 순간은 제대하는 순간입니다. 고3학생이 수능을 봐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서울대 입학이 확정된 뒤에 2월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립니다. 이 졸업식이 이 학생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은 고3학생에게 서울대학이 좋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교제가 있고 우리가 그 교제에 참여되고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내 육체를 통해 이루실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육

체가 죽게 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가장 기대하고 열망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3: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 뜻으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머물고 싶어 했는데 이런 마음이 정상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육체를 통해 무언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기쁨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아닙니다. 히2:15절의 말씀처럼 '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육체가 곧 나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흙에서 지음 받은 육체와 나를 동일시해서 육체에 꽁꽁 묶여서 육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된 이유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육체가 나인 줄로 알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워하는데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은 가장 열망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진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에 두려워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께 뜻밖의 말과 뜻밖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뜻밖의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웁니까? 중앙 성소에 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바깥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떡 상이 있어서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그 이름의 존재로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있어서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그 이름을 얻을 수 있으면 옳은 것이고 얻지 못하면 나쁜 것이라는 판단의 밝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밖의 말과 뜻밖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나님께 가고,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거점으로 사용되는 사명적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시는데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주실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밖의 일을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잃지 않으려

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선택받아 구분되는 사람이 되는데 육체의 죽음을 가장 강렬하게 열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 육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모든 사명이 끝나고 그 순간이 고3학생이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한 졸업식을 하는 것 같이, 내 생애의 절정인 순간이기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가장 기쁘게 열망할 수 있는 선택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가 나의 체질이 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사명적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뜻밖의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